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월 9일(목) 11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4.9(목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
담당과장	박대규 과장(044-203-5740)	담 당 자	임수지 사무관(044-203-5743)

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분석

- 민·관 합동 화상 세미나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**하고 이를 토대로 **우리의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 전략을 보완**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민·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
< 행 사 개 요 >

- **일시·방식** : '20.4.9.(목), 14:00~16:00, 화상회의
- **참석자**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국제통상학회 및 통상전문가
  (산업통상자원부)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외 10명
  (국제통상학회) 안덕근 학회장, 이재민(서울대), 정인교(인하대), 서정민(숭실대) 등
  (통상전문가) 이재형(고려대), 김성중·정기창·조영재·윤석준·표인수 변호사, 심종선 이사(삼정KPMG) 등
- 토론주제 :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FTA 추진전략 등 통상정책적 시사점 논의

□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민·관 합동세미나는 **코로나 19의 영향과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***에 이어 **민·관 공동 토론**이 진행되었다.

* ① 코로나 19의 세계경제 영향 및 통상환경 변화 분석
②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통상전략 및 FTA 추진방향 모색

□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**글로벌 공급망**(global supply chain) **약화**와 **교역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**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**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과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**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○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"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**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 수립이 필요**하다"고 언급하였다.

□ 특히,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'**상품·서비스 교역 원활화**', '**글로벌 공급망 확보**', '**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**', '**디지털기반 비대면 경제의 사전 준비**'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,

○ 보건·의료 측면에서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(WTO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 다자차원의 통상 논의뿐 아니라, **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의 국제공조를 주도**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.

□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"코로나19 상황에서 **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**하여,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**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,**

○ 동시에 **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FTA 추진전략을 사전에 마련**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**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**해 나갈 필요가 있다"고 강조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임수지 사무관(☎044-203-57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